Credit Market Frictions and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 (화폐와 신용의 필수불가결성에 대한 논의: 신용마찰을 중심으로)

권오익, 이만종

(연구 배경)

-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지
 - 신용을 이용한 거래는 차입자와 대부자 간의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반면 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음
- 화폐경제학 문헌에서는 지급수단으로 화폐와 신용이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
 - 이론적으로 보면 화폐와 신용은 지급수단으로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에 어떠한 마찰(friction)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지급수단이 공존하기는 어려움
 - 반면 현실 경제에서는 화폐와 신용은 모두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두 지급수단의 공존을 설명할 수 있는 마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음
- 본 연구는 차입자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(asymmetric information)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마찰(credit market friction)을 기존의 이론 모형에 도입하여 화폐와 신용의 공존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도출

문의처: 권오익 금융통화연구소 부연구위원 (☎ 02-759-5391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일부 수정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만종 교수님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완성되었음을 밝힙니다.

(모형 설정)

- Lagos and Wright (2005) 모형에 이질적인 생산성을 가진 경제주체를 도입하고 동 생산성이 사적정보(private information)가 되도록 설정
 - 서로 다른 생산성으로 미래 상환능력에 차이가 있는 두 유형의 차입자가 존재
 - 신용 또는 화폐가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
 - 대부자는 신용 거래시 차입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할 유인이 있는 금액만큼 신용한도로 부과
 -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을 거부하는 고의부도 현상은 균형에서 발생하지 않음

(분석 결과)

- 경제주체의 미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이 지급수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므로 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음
 - 차입자가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용한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화폐를 보유할 필요가 없음
- 반면 경제주체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차입할 수 없는 차입제약이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할 필요

- 차입제약으로 인해 신용거래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하기 어려운 차입자의 경우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차입제약을 완화시켜 원하는 수준의 소비 가능
-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화폐와 신용을 모두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

(시사점)

-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신용마찰이 존재하는 한 신용의 사용이 더욱 확대되더라도 화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
- 특히, 지급수단으로서 신용과 화폐간의 공존이 사회후생의 측면에서도 바람직